

2006년도 국제무대에서의 우정 리더십 활동 성과 및 2007년도 추진 계획

이 용 석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우편 부문의 국제기구 즉 만국우편연합(UPU)이나 아·태 우정연합(APPU)에서처럼 국가간에 참여한 경쟁
있수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협력 위주의 무드가 강조되는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은 정책의 역점이나 관심이 기울여
지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우편서비스 업무가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에서
민간 기업체로 전이되면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서 상업성이 중시됨에 따라 국가간 배달 취급비 정산 등의 사
안들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기준 등을 정하는 우정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많은 국가들과 민간 우정사업자들
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도 협력 무드에서 경쟁구도로 변하고 있는 우편분야의 국제관계를 직면하면
서 국제기구 및 국제 협력관계를 적극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I. 국제 우정기구의 패러다임 변화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편서비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서 상업성
과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는 만큼 이 시기 우편분야 국제관계는 협력일변도였다. 만국우편연합
(UPU) 총회는 4년마다 각국 우정청의 오랜 동료들이 모이는 국제 잔치와 같은 것이었고 아·태
우편연합(APPU) 회의는 특별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기보다는 그저 지역적 차원의 대화 협
의체 같은 것이었다. 특정 우정청의 입장에 특별히 반대 입장을 취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
는 것은 국제 선린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우편은 민간에
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가기관은 관리감독자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의견
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90년대 말 네덜란드, 독일 우정은 국가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독립된 경영을 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는 TNT, DHL을 인수하여 공공우편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편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는 국가기관에서 상장회사까지 조직의 법적 지위와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최근 UPU, APPU 등 우편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국가간 배달 취급비 정산문제, 서비스 품질과 정산의 연계 등 상업적 이익에 관련된 사안들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 우정청의 관계도 협력 일변도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즉 보편적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과거의 협력관계를 지속하지만 특급, 소포 등 경쟁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정청간의 경쟁관계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편 환경변화 속에서 지난 2006년 한국우정의 국제기구 및 협력활동을 종합 분석해 보고 2007년도 국제기구 활동 방향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설정해 보고자 한다.

II. 2006년 우정분야 국제기구 활동 주요 내용 및 성과

1. 만국우편연합(UPU) 주관 회의

2006년 UPU는 4회의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2회의 고위급 회의와 양대 이사회의(우편운영이사회(POC) 및 관리이사회(CA))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개최하였다.

1) 2006년 상반기 UPU 고위급 회의(4월)

2006년 4월 UPU 소재지인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UPU 고위급회의는 '06년 11월 두바이(Dubai) 세계우편전략회의를 위한 사전회의로서 우편운영부문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하였다. 동 회의의 주요 목적은 우정분야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우편환경 변화를 알리고,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선진우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동 고위급 회의에서 UPU 국제사무국 측은 한국우정에게 우편사업에서의 IT의 의미와 중요성을 소개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우정은 우편사업단장이 “우편사업의 전환, 다각화 및 발전: 신기술의 역할”이라는 세션에서 “한국 우편사업에서의 첨단기술의 역할

및 의미”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국우정에게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바로 첨단 IT 기술이었고, 한국우정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략상품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한국 우정의 IT를 활용한 경영 혁신사례는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작년 10월 국제우편물류 컨설팅 회사인 테라편사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태 우편 물류 국제회의에 한국우정의 우편사업단장이 핵심 주제 발표자로 초청되기도 하였다.

〈표 1〉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 설: 1874. 10. 9. ○ 회원국: 191개국(2006. 12월 현재) ○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인의 통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질의 보편적, 효율적, 이용하기 쉬운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 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 보장 -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의 채택과 기술의 적용 촉진 - 이해 관계자들간의 협력과 상호작용 증대 - 효과적인 기술협력 제공 촉진 ○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Congress): 연합 최고의결기관으로 4년 마다 개최되고 회원국 전권대표로 구성 - 연합의 상설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이사회 (Council of Administration: CA): 41개 이사국 총회와 총회사이의 기간에 연합의 활동을 감독·조정하고, 의무 서비스 등에 관한 일반원칙 및 정부정책 담당 • 우편운영이사회 (Postal Operations Council: POC): 40개 이사국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항 및 기술협력 담당 •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IB): 40개 이사국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 ○ 우리나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1900. 1. 1(북한은 1974. 6. 6. 가입) - 분담금: 15단위 약 5억원 - 1994년 제21차 서울 총회 개최 - 관리이사회 의장국: 1995~1999 - 우편운영이사회 및 관리이사회 이사국: 1995~현재 - UPU 자문그룹 회원국: 2005~2008

2) 두바이 UPU 세계우편전략회의

UPU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서 총회와 총회 사이 우정의 규제 기관 및 운영 관련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이전 총회가 채택한 「세계우편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우정사업 주요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우정사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위급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97년 및 200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전략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 개최된 UPU 부카레스트 총회는 2006년 11월 두바이에서 「2006년 세계우편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2006년 11월 14~16일까지 3일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는 바, UPU 191개 회원국 정부의 최고위급 우정 인사, 우편관련 기업 CEO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우편분야와 정보사회, 우편 규제와 개혁 등 8개 분야에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고위급 전략회의에는 WTO 사무총장, ISO(세계표준화기구) 사무총장, World Bank 부총재, 아랍에미리트 정보통신부 장관, 독일 우정 사장, 미국 e-Bay 수석 부사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우편분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였다.

한국우정은 “우편분야와 정보사회” 패널에서 「우편서비스에서의 정보통신 기술도입」을 주제로 한국우정의 우정사업본부장이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여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우정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서비스를 혁신시킨 경험과 노력을 설명하였고 특히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정보기술을 활용한 고객서비스 혁신사례 및 u-POST를 지향하는 한국우정의 미래상을 소개하였다.

두바이 고위급전략회의는 UPU 차원에서 총회에 버금가는 중요한 회의로서 UPU가 한국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회의 첫 번째 패널 주제발표를 요청한 것은 한국우정 IT의 발전상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의 연설은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우정 분야에서도 IT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 IT의 위상제고와 우정IT 수출지원 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3) UPU 우편운영이사회(Postal Operations Council; POC) 연차회의 주요 결과 및 우정 활동

한국우정은 1994년 이후 줄곧 UPU의 양대 이사회인 우편운영이사회(POC)와 관리이사회(CA)의 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UPU의 주요 사업 및 연구활동에 기여하여 왔다.

2006년 우편운영이사회 연례회의는 3월 23일부터 4월6일까지 16일간 UPU 본부(스위스, 베른 소재)에서 40개 이사국 대표 및 업저버 등 4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POC에서는 만국우편연합 조약규칙 개정, 통상우편물 정산제도(배달국취급비제도, Terminal Dues) 변경 연구 보고 및 토의, 서비스품질 측정 제도 도입 국가 확대를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이 이루어졌고, POC 기간에 개최된 EMS 조합 총회에서는 EMS 조합 이사 3인을 선출(일본, 중국, 영국)하고 전세계 EMS 서비스 시장에 대한 현황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우정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편관련 이해관계자 그룹인 UPU 자문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방안 및 우편시장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2006년 UPU POC의 가장 큰 성과는 UPU조약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 규칙 42개 조문이 개정 또는 새로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등기우편물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되고, 특수취급우편물(배달증명, 등기 및 보험우편물)에 대한 우정청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부터 적용되는 선진국간 배달국취급비 요율을 개정하였고, 소포정산료 하한선을 새로 설정(4.25 SDR)하였다. 그리고 우편물로 유통이 금지되는 마약류 등 우편금지품에 대한 신규조항이 도입되었다.

한국우정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정조항은 특수취급우편물 책임 부분으로 올해부터 국제특수취급 우편물 배달시 수령인 확인사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2008년 케냐에서 개최되는 제24차 UPU 총회에 제출될 국제통상우편물 정산제도(배달국취급비, Terminal Dues(TD)) 개편안 마련 작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POC 산하 TD 프로젝트 그룹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3개 제안을 POC 결의로 채택하였다. 3개 결의 주요 내용은 ① 07년도 목표시스템 국가간 TD와 서비스품질 연계 조건 수정, ② 전세계 우정청 국내우편요금 자료 DB 구축, ③ 과도시스템적용 우정청에 대한 TD와 서비스품질 연계제도 참가 촉구 결의 등이다.

한국우정은 1인당 GNP가 1만5천 달러에 이르고, 우편물 소비량이 연간 100통에 이르는 우편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배달국취급비와 서비스품질 연계제도 우선 편입대상 우정청에 해당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손익계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품질과 TD 연계는 UPU가 정한 RFID를 이용한 우편서비스 품질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서비스품질 측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와의 손익계산을

정확히 산출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얻는 정산료는 연간 2억원 정도로 예측되나 투입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우정은 선진국 수준의 우편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2008년 새로 도입될 통상우편물 정산제도가 현행의 이원화 시스템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우정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는 전제하에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UPU는 2012년의 전세계 우편시장 구도를 전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POC에서 연구결과 초안이 공개되었다. 연구결과 초안은 우편 섹터의 진화와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3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별 전략적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POC 회의중 제기된 이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회의 기간중에 국제우편소포 발전 방안에 대한 대규모 논의가 이루어졌다. '04년 UPU 부카레스트 총회에서는 국제 우편소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자료교환(EDI)과 정산제도를 연계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를 운용한 결과 한국우정과 같이 EDI 요건을 충족시켜 40%에 달하는 인센티브 요율을 추가로 지불받는 국가도 생겨 났지만 전산화가 미비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우정청에게는 평균 정산료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하한치 요율(4.25 SDR)의 도입은 특정국가에서 서비스 향상 없이 정산료만 인상해주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새로 부각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POC 소포그룹에서 정산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 및 보완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UPU는 우편이해관계자를 UPU 논의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UPU 자문이사회(Consultative Committee: CC)를 부카레스트 총회에서 구성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해관계자의 참여 저조와 지역편중이라는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UPU는 이번 POC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각적으로 회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06년 우편운영이사회 결과 한국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이슈는 통상우편물 정산료제도와 우편서비스 품질연계 그리고 UPU 조약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조치 사항이었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품질과 통상우편물 정산제도(배달국취급비) 연계원칙 확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서 이 원칙은 능동형 RFID를 이용하여 통상우편물 송달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우편물의 정산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한국우정은 동 제도의 시행을 늦추거나,

시행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공동대응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 2004년 UPU 부카레스트 총회 배달국취급비 제도 개요

배달국취급비제도 정의 ○ 통상우편물에 대한 상대국 취급비 정산제도 -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정산제도를 운영 - UPU는 원가에 기초한 단일정산제도 마련을 추진		
	과도시스템(transitional)	목표시스템(target)
적용대상	• 개발도상국	• 선진국 • 목표시스템 선택 개발도상국
요율	• 3.727 SDR/kg	• 20g 국내 신서 요금의 62%~68% • 상한치 '07년 0.231 SDR/item + 1.812 SDR/kg '08년 0.237 SDR/item + 1.858 SDR/kg '09년 0.243 SDR/item + 1.904 SDR/kg • 하한치 하한치 기준 TD < 20g 국내요금 100%: '07년 0.154 SDR/item + 1.566 SDR/kg '08년 0.158 SDR/item + 1.598 SDR/kg '09년 0.161 SDR/item + 1.630 SDR/kg
서비스품질 측정 참여	• 선택 사항	• 필수 사항
향후 제도 개편 방향	• 단일 정산제도 • 국가별 국내 빠른 신서 요금에 기초한 원가반영	

4) UPU 관리이사회(Council of Administration; CA) 연차회의 주요결과 및 한국우정 활동
 UPU에서 정부간 문제 및 우편 규제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 관리이사회(Council of administration: CA)는 '06년 10월 5일~20일까지 16일간 스위스 베른의 UPU 국제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UPU CA 41개 이사국과 옵저버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우정은 3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이번 CA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이슈는 UPU 개혁, 우편 규제,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UPU

서비스품질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우선 UPU 개혁(Reform of the Union) 이슈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UPU 미래구조 관련 설문서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 회원국간 단일 우편 영역(single postal territory)에 대한 민간 부문의 침범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도입 연구 추진 보고, 차기 총회에서 채택 예정인 세계우편 전략 마련 작업의 일환인 “미래 UPU의 역할 시나리오”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경과 및 민간부문의 UPU 활동 참여수준에 대하여 ITU(국제전기통신연합)로의 자문요청 경과 등에 대한 보고와 관련 토론이 있었다.

UPU의 구조 개혁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UPU 관리이사회(ICA)의 정책 및 기획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방안 마련이 논의되었고, UPU의 정책적(governmental) 활동과 운영적(operational) 활동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위하여 UPU의 연구활동 그룹별 구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편 규제 문제(Postal Regulatory Issues)와 관련하여 CA 산하 보편적서비스(Universal Postal Service; UPS) 프로젝트 그룹은 아프리카 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모델 정립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결과 UPS 유지를 위한 우편요금 인상은 우편 수요감소를 가져와 오히려 UPS 제공을 위한 재정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편적 서비스 프로젝트 회의에서 한국우정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법론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UPU 회원국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법론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품질 수준, 재정 확보 등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CA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운영에 관한 가장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EU의 역내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침(Directive)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EU의 경우 '07년까지 개정안에 대한 EU 역내 회원국간 의견을 수렴하여 '08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이사회(CA)에서는 UPU 서비스품질기금(QSF)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한국우정의 경우 상당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개발국 우정청만을 지원해 왔고 자국 우편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사용한 실적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UPU는 통상우편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권고하였다.

〈표 3〉 UPU 서비스 품질 기금(Quality of Service Fund: QSF) 개요

○ 기금의 목적

- 국가간 통상우편물 정산료(배달국취급비)의 일정 비율을 UPU 국제사무국에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전세계 보편적서비스 품질향상이 주요 목적

○ QSF 적립 개요

- '01~'05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급하는 배달국취급비의 7.5% 적립
- '06~'09년 적립 비율

적용 국가 분류		QSF 적용요율
선진국	→ 순기부국 (한국 해당)	1%
	→ 개도국	8%
	→ 최빈국	16.5%
선진개도국(한국 포함)	→ 최빈국	16.5%
개도국	→ 최빈국	16.5%
최빈국	-	-

○ 기금 현황

- 전체 기금현황: '06. 6월 UPU QSF 총 금액은 67.6 백만USD
- 296개 프로젝트 40백만 USD 승인

○ 한국계정 기금 현황

- 기집행 금액: 80만 USD
- '06. 12월 보유기금: 260만 USD

2006년 하반기에 개최된 관리이사회 기간 중에도 배달국취급비관련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 하반기 실무그룹회의에서는 배달국취급비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 원칙 우선순위가 재정되었고, 현행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정산하는 이원화 체제의 연장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우정에게는 단일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이원화 체제 유지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원화 체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한국우정은 우편선진국에 편입되어 선진국 기준 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산제도 개편으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새로운 국가간 정산료 제도 논의는 2007년 우편운영이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우정으로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6년 관리이사회 기간중 ASEAN 우편사업자 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우정 대표는 ASEAN

우정청이 발족한 “ASEAN Post 프로젝트”에 한국우정의 참여를 요청하고, 07년도 마닐라 개최 예정인 “ASEAN 우정사업 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하였다. 동남아 국가들은 카할라 그룹 활동을 모델로 하여 2006년 8월 “ASEAN Post Project”라는 이름하에 동남아시아 EMS 서비스에 대한 획기적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ASEAN 공공우편사업자들은 지역 EMS 사업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바, 현재 일본과 인도는 상기 프로젝트 참여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 한국 우정도 물량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SEAN 국가에서의 특급시장 선점을 위해 ASEAN Project 참여 여부 득실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아·태우편연합(APPU) 활동 참여 성과

한국우정은 2005년 제9차 APPU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총회 개최국에 당연직으로 주어지는 집행이사회(EC) 의장직을 차기 총회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총회 이후 첫 집행이사회가 2006년 5월 8일~5월 13일까지 6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PPU 회원국, 국제기구 대표 및 옵서버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국우정은 우편사업단장을 수석대표로 총 7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한국우정은 의장국으로서 3일에 걸쳐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였다.

APPU는 이번 집행이사회 연례회의에서 APPU 조직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합의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였다. 특히, 산하기관 아·태우정대학(APPC)의 재정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APPU 조직 전반의 운영 및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기관별 회의(APPC 관리이사회, APP 조합 총회 등)에서 향후 APPU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APPU EC 기간 중에 개최된 아·태우편조합(APP Coop) 총회에서는 관리이사국 선거가 있었으며 한국우정은 일본우정 및 싱가포르우정과 함께 2년 임기의 이사로 재선되었다. 한국우정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아·태우편 조합 관리이사(APP CMB)로 재선됨으로써 아·태 지역 우편서비스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태우편 조합 총 25개 회원 가운데 APP CMB(관리이사국)은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 7개 우정이다.

APP Coop 관리이사회(CMB)에서는 아·태우편조합(APP Coop)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무소를 싱가포르에서 방콕으로 이전하는 문제, 매니저 선발 등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하였다.

이번 회의 기간중 개최된 아·태우정대학(APPC) 관리이사회에서는 2007년도 16개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계획과 일정을 확정하였고 한국우정은 11개 과정 16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하였다. 2007년도 APPU 집행이사회는 11월경 인도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APPU는 집행이사회 회기와는 별도로 UPU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통상우편물 정산료 제도 개편논의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아·태지역 우정청에게 UPU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달국취급비 논의 정보를 제공하고,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단일 입장을 마련하여 UPU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워크숍은 2006년 9월 5일, 6일 2일간 홍콩에서 개최되었고, UPU 배달국취급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새로운 제도가 각국 우정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아·태지역 우정청 공동입장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워크숍 결과 아·태지역 우정청은 현행 배달국취급비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단순한 배달국취급비의 산정 및 정산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3. 아·태우정대학(APPC) 교육훈련 및 세미나 참가

한국우정은 아·태우정대학 창설(1970년) 회원국으로서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훈련시킨 핵심 회원국이다. 2006년에도 7개 과정 13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해외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1개 과정 16명으로 확대하여 우정종사원에게 해외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우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EMS 유공자를 위한 APPC EMS 마케팅 특별교육과정을 APPC에 개설하여 EMS 마케팅 직원을 대상으로 전 세계 EMS 사업 현황과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우정은 APPC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우편금융 과정 참가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우체국 금융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소개하였다. 2006년 11월 13일~24일까지 8일간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아·태지역 9개국에서 21명이 참가하여 한국의 우체국금융 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시설을 견학하였다.

Ⅲ. 한국우정의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성과

2006년 한국우정의 국제협력 활동은 우정사업 정보화를 통한 수익창출과 경영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우정 IT 선진상을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국우정은 영국 트라이앵글사가 주관하는 World Mail Awards에서 전자상거래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다양한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한국우정이 이루어낸 성과를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1. 우정사업본부 PostNet 및 인터넷쇼핑몰 World Mail Awards 수상

World Mail Awards는 국제 우편·물류 컨설팅회사인 영국의 트라이앵글사가 주관하는 상으로 우편·물류업계에서 고객만족, 기술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e-Commerce, 인력관리, 리더쉽 등 총 10개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한국우정은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과 우체국 통합물류시스템(Post-Net) 구축 운영 성공사례로 전자상거래 분야와 테크놀로지 2개 분야에서 2006년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우정이 유일하게 2개 분야 동시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고 두개 수상분야 모두 첨단 우정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값진 수상으로 평가된다.

2. 아·태 우편 및 물류 국제회의 초청 참가

한편 국제 우편물류 컨설팅 회사인 테라핀사는 자사가 주최하는 아·태 우편 및 물류회의에 한국우정을 발표자로 초청하였다. 이 회의는 2006년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우정은 우편사업단장이 참석하여 2개 세션에서 한국우정의 주요 정보화 성과 및 성공적인 신사업모델 개발에 대하여 소개하여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 회의는 우편, 특급 및 물류분야 고위급 전문가와 CEO에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면서 새로 부상하는 이슈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로서 신기술,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전략, 미래 우편서비스,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우정공사 부사장, DHL 아·태지역 부사장 등 발표자를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우편사업의 환경변화와 대응 전략”과 “새로운 우편 수입원 다각화 및 모색” 등 2개 패넬 토의에 참가하였다. 한국 우정은 우편서비스의 품질향상, 물류 프로세스 혁신, 전략사업 육성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우편사업 경영혁신을 통해 수지개선을 이루어 내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3.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 참가

한국우정의 국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중국과 일본이다. 실제 한국우정의 특급우편 전체 물량의 절반이 일본과 중국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3국 우정은 일찍부터 상호간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0년부터 매년 우편고위급이 회합하여 우편에 관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왔다.

2006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는 2006년 11월 28일~12월 1일까지 4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우정은 우편사업단장 등 4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일본우정은 우편사업 본부장 OKADA Katsuyuki, 중국우정의 경우 국가 우정국 부총재 Zhang Ya Fei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2006년 회의에서는 한국우정의 IT를 접목한 우편물류프로세스 혁신, 일본 우정의 우편서비스 개혁, 중국 우정의 최근 우정 개혁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EMS 서비스와 관련한 3국의 시장현황과 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우편사업에서 첨단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본우정이 우편물 배달순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GIS 적용 사례를, 중국과 한국은 RFID 연구개발 및 시험운용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006년 한·중·일 우정고위급 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양해각서는 3국간 우정사업 수지개선을 위해 우정분야 혁신 및 개혁 추진과 관련한 협력, 민간 특송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상업적 경쟁력이 높은 EMS의 개발, EMS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3국 간 현지조사를 위한 영업활동 요원의 상호파견 추진 그리고 RFID, GIS 등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공동노력과 관련 기술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 제 8차 한·중·일 우정 고위급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IV. 우정 선진국으로서의 책무 이행

한국우정은 2006년에도 저개발국 우편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한국우정에 배정된 UPU 서비스 품질기금을 이용하여 우편인프라 낙후국가 우정청과 재난 우정청을 지원하였다. 2006년의 경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우정청 등에 총 30만 USD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해당 국가 우정청과 UPU 국제사무국이 제안서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우정은 우편금융선진국으로 APPU에서 주관하는 금융훈련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한국우정에 초청하여 한국 우편금융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2007년 아·태우정대학에서 주관하는 우편관리과정과 우편금융 과정을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약 20개국에서 40여명의 훈련생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우정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우정의 선진 우정 IT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2006년 한국우정은 카자흐스탄과 몽골우정에 대하여 우편사업 전반을 진단하고 우편개발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우정은 한국우정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카자흐스탄 우정 현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V. 2007년 중점 추진계획

2007년 한국우정은 “국제기구 및 협력 활동을 통한 국제 우정리더쉽 구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UPU 핵심 이슈에 대한 주도적 참여, 우편분야 국제 전문 인력 양성, 한국 우정 경영 혁신 사례 홍보, 국내 우정 IT업체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국제기구활동과 관련해서는 UPU, APPU 등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우정의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은 한국우정이 차기 UPU 총회(2008년 8월, 케냐)에서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진출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한국우정의 경우 UPU 관리이사회 이사국은 2회 연임하였으므로 차기 총회에서는 출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한국우정의 대외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재진출 기반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금년 UPU 회의에서는 국제정산료 논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미 자세히 서술

했듯이 한국우정은 2008년 UPU 나이로비 총회에 제출할 새로운 제도안 마련시 한국과 개도국의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APPU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한국우정에 대한 아·태지역 저개발국 우정청의 기대를 고려하여 지역 우편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한다. ASEAN 우편사업자 회의 등 지역 내 소규모 우정청 활동에도 참여하여 새로운 사업과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2007년 한국우정은 세계 우정 리더로 거듭나고자 한다. UPU 서비스품질기금(QSF)을 통한 재난국가 및 저개발국가의 우편 인프라 개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하반기에는 제8차 한·중·일 우정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3국 우정청의 우정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한국우정의 국제전문인력 정예화를 추진할 것이다. 국내 전문교육 및 아·태우정대학(APPC) 파견 교육 등을 통해 현재의 국제 pool 요원을 소수 정예화하여 이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우정의 경영혁신 사례 및 성과를 UN 정부 혁신상 및 World Mail Awards 등 국제시상대회에 적극 소개하고, UPU 및 APPU 특별회의에서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계속 대외에 홍보할 것이다.

다음 표는 2007년도 주요 추진 세부 계획들을 개조식으로 다시 정리한 내용이다.

〈2007년도 주요 추진 세부 계획〉

- UPU 국제우편 배달요금 정산제도 개편논의 주도적 참여
 - 국제간 정산제도 개편 개요
 - 우편물 정산제도: Terminal dues(통상우편물), Inward land rates(소포우편물), Imbalance charges(EMS)
 - 정산제도 개편 개요: Terminal dues를 현재의 선진국과 개도국에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실제 비용에 기초한 단일 정산제도로 개편 추진
 - 현재 관련 연구 및 논의 진행 상황
 - 새로운 Terminal dues 제도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 마련
 - 단일 제도 입안에 기초가 되는 UPU 회원국 국내우편요금 DB 구축
 - 새로운 TDs 제도에서의 top 및 bottom 유지 논의 진행 등

- 단일제도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이원화제도 유지 요구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부상
- 2007년도 논의
 - TDs 관련 논의 동향 제공 및 아·태지역 단일 의견 마련을 위한 지역워크숍 개최
 - 이원화 제도 유지시 우편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기준 마련
 - 단일제도 마련의 경우에도 top 및 bottom 유지 논의
 - 우편서비스 품질 측정 의무 부과 기준 논의 등
 -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한 차기총회 제출할 배달국취급비 제도 초안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총회에 앞서 개최되는 UPU POC에 제출
- 한국우정 논의 참여 방향
 - 단일 TD제도가 유력시 되는 경우 한국우정에 유리한 top과 bottom 마련에 노력
 - TD 이원화 체제 유지가 유력시 되는 경우 우편 개도국 잔류를 위해 노력하고, 우편 선진국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제도 적용시기를 늦추도록 노력함. 이를 위해 한국우정의 입장을 지지하는 우편개도국 확보를 위해 노력
 - 한국우정과 여건이 유사한 싱가포르, 홍콩 및 브라질 우정 등과 공조 대응
- UPU가 새로 도입하는 국제우편규정 및 신규서비스 정보 파악 및 대응
 - UPU 우편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하는 만국우편연합 조약규칙 개정 내용 국내 적기 시행
 - 국제간 Hybrid mail, 디지털 소인, 새로운 표준 등 UPU가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또는 제도의 국내 도입 적합성 검토
- 한국우정 해외 진출 대비 우편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 아·태우정대학(APPCC) 교육훈련 파견 확대
 - '07년 국제우편정산, 서비스품질관리, 선진 마케팅 기법, 우편·소포·물류 관리, 인적자원 관리, 국제우편서비스, EMS, 판매 및 위탁업무 11개과정 16명 파견 추진
 - APPCC의 교육훈련과정을 한국에 유치하여 국제전문인력 pool에 참여기회 부여(우편 관리과정, 우편금융과정)
 - 국제회의 전문교육과정 운영
 - 시기 및 장소: 4/4분기,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 주요 교육내용: 국제회의 참가, 운영, 회의 영어, 국제 에티켓 등
 - 국제전문인력 정예화
 - 국제전문인력 pool을 100명 이내로 정예화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5개 언어 pool로 한정하여 운영

- 국제전문인력의 국제행사 참여기회 확대
 - 국내외서 개최되는 국제 세미나, 워크샵 참가 기회 확대
- 한국우정 경영성과 및 혁신 사례 대외 홍보
 - 한국우정 경영성과 및 혁신사례에 대한 국제 인증 및 수상 추진
 - UN 행정혁신상 및 World Mail Awards 등
 -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우정 혁신 사례 홍보
 - UPU 및 APPU 연례회의에서 한국우정 경영현황, IT 선진성 등에 대한 발표 추진
 - 우편·물류 국제회의 및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여 홍보활동 전개
 - Mail & Express Conference, Post-Expo 등
- UPU 서비스품질기금(QSF) 활용을 통한 친한 국가 확대 및 국내 IT업체 해외진출 간접지원
 - UPU 서비스품질기금(QSF)을 통한 재난국가 및 저개발국 우편 인프라 개발 지원 계속
 - '07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점 지원
 - UPU 서비스품질기금(QSF) 수혜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우정IT 제품 홍보활동 전개
- 주요국가의 우정사업 동향에 대한 정보 입수·전파
 - UPU와 APPU 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국가 규제·운영 정보 및 개혁 정보의 입수
 - 선진 우정사업자의 성공적인 신사업 진출, 신상품 도입 등에 관한 정보 수집

VI. 맺는말

이상 2006년 한국우정의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활동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2007년 중점추진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및 협력활동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관심의 소홀 등으로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던 한 해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특히, 한국우정이 이루어낸 경영혁신과 정보화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기대 이상의 국제적 관심과 주목을 받은 한 해였다.

국제기구와 협력활동은 우편사업 운영, 매출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우정이 이루어낸 성과를 외국에 홍보하고 사업성장을 간접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우정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외국 우정청의 벤치마킹을 유도하는 등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측면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UPU 국제사무국, 『Decisions of the 2004 Bucharest Congress』, 2005
우정사업본부, 『2006년도 UPU 운영이사회(POC) 참가보고서』, 2006. 5
UPU 국제사무국, 『UPU Postal Operations Council Summary Record, 2006 session』, 2006. 6
APPU 사무국, 『Minutes of the APPU-Executive Council Meeting』, 2006. 10
UPU 국제사무국, 『Union Postale 2006. 3호』, 2006. 10
우정사업본부, 『2006년도 UPU 관리이사회(CA)참가보고서』, 2006. 12
UPU 국제사무국, 『UPU Council of Administration Summary Record, 2006 session』, 2007. 1
UPU 국제사무국, 『Union Postale 2006. 4호』, 2007. 1